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이번 주일은 우리 교유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추석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예배순서

인도: 가족중 어른

묵도	다함께
성서 살전 5:16-18	인도자
찬송 307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 엡 3:20-21	인도자
메시지 “영광의 찬가”	인도자
찬송 305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영광의 찬가”

(예배소서 3장 20-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겠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의 송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성도의 무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백성으로 부르시사 다스리시고, 2004년의 지난 9개월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셨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 보다는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창조주이시니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혹 고통이 따르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 구할 때 마다 응답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을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없다면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기도의 은총을 잘 활용했나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회개하여 거듭난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약 4:4)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3.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존영을 당대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분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못주실 것이 없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베푸신 영광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어서 다윗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라고 감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국한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와 민족 위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만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 것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엡 2:1)를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후대하셨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시 116:7)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금년 추석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다

장애인 시설 및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

교회를 설립하면서 천국 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 그리고 빈약한 자 구제를 3대목표로 세운 우리교회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이웃사랑 교회 사랑 2004 바자를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감사 속에 마친데 이어 수익금중 일부를 가지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구제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를 중심으로 사랑부 교사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 두 곳을 방문,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집으로 이곳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평소 우리교회 사랑부에 출석하며 천국의 소망을 키워가고 있는 곳이다. 교회는 두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정상인과 다른 신체적 조건 때문에 유난히 신발이 빨리 허는 것을 딱하게 여겨 이들에게 신발을 추석선물로 기증하였다. 또한 교회는 교구당

당 교역자를 통하여 각 교구에 사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추석을 맞아 위로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추석을 맞도록 하였다.

당 교역자를 통하여 각 교구에 사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추석을 맞아 위로금을 전달하여 따뜻한 추석을 맞도록 하였다.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내일부터 추석명절이 시작된다. 들뜬 휘어져 있는 오희백과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번 가을은 이렇게 많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초대형 태풍을 두 차례나 옆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적당한 비와 맑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이제 수확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수확의 감사를 조상들에게 돌리고 제사와 차례를 지내고 있어 올바른 감사의 대상을 전도

시키고 망각하고 있다. 성도된 우리는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추석연휴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교회는 매년 추석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면에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고향을 향하는 성도들은 성경찬송과 함께 순례자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한다.

제3기 군입대자 교육 군복무자를 위한 10월 중보기도회

군입대자 교육 : 10월2일(토) 오후 3시, 705호실에서
10월 중보기도회 : 10월3일(주) 오후 3시30분 102호에서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에게 복음을 전하려 먼저 군복음화를 위해 비전 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를 설립, 군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우리교회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헌신교사로 파송키 위한 제3기 군입대자 교육을 오는 10월2일(토) 오후 3시 705호실에서 갖는다. 교육 대상은 10, 11, 12월에 입대하게 되는 젊은이들로

군 생활을 소개하는 VTR 상영, 군과 신앙생활, 영성훈련 등을 받게 된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미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인 젊은이들을 위한 10월 중보기도회가 10월3일(주) 오후 3시30분 102호(미스바 홀)에서 열린다. 가족 중 군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거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참석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사명자 대회란?

우리교회는 두 가지 큰 자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흥해 작전과 사명자 대회로 흥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작전이고 사명자 대회는 기도와 전도의 대회입니다.

이 두 가지 자랑중 하나인 사명자 대회를 오는 10월 10일(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순례자는 사명자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나마 사명자대회를 살펴 보기로 하였습니다.

<취 지>

서울교회 창립을 위해 50일간 기도로 준비했던 때를 회상하고 해마다 교회 설립 50일전에 사명자 대회가 개최됩니다. 처음 사명자대회가 비전2000 운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00년까지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고 사명자 대회란 이름으로 변경후에도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힘써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자 대회를 하게 되나요?>

-기 간-

교회를 설립하기 50일전인 1991년 10월 첫 주부터 7주간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것을 기념하여 사명자 대회를 이 기간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동기도제목선도-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여 이 기도제목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태신자 정하기-

태신자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복중에서 열 달 동안 온갖 정성과 기도를 다하여 마침내 출산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전도하려 작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힘써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열열이 기도)-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 하루 세 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하루 2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속기도회-

연속기도회는 사명자대회 기간 중에 50일 동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회를 위해 웨스트민스터 홀을 24시간 개방하여 정한시간에 순서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사명자대회 기간 중 교회설립기념 주일 2주전부터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새벽기도회는 30분 당겨진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추석 특별논고 - 기독교인과 제사

죽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효행(孝行)인가?

- 죽은 자에게 제사는 우상숭배 -



김재진 목사
(서울교회협동목사·
신앙강좌부)

1.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거침들이 되는 제사문제

유교 문화권 속에 있었던 당시 조선이, 천주교가 한국에 선교되는 것을 막는 '척서교론(斥西教論)' 혹은 '척서론(斥西論)'의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유학자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무군무부(無君無父)', 곧 임금도 섬기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는 패륜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비윤리적 종교로 단정하였습니다. 즉 기독교를 자기 나라 임금과 자기 부모도 없는 서양 상놈들의 종교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약종의 둘째 아들 정하상(丁夏祥, 1759-1839)은 기독교의 신앙이 결코 '무군무부'의 패륜적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효'를 가르치고 있는 종교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이국지원(理國之源)'이 될 수 있는 '무해정도(無害正道)'의 종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자신이 순교하게 되면, 그 순간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평소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그 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가 참된 효행의 종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를 업신여기고 임금을 업신여긴다 하니, 기독교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사율(第四律)이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대저 충효의 두 글자는 만대에 변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부모의 뜻을 받들고 그 육신을 봉양함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로되, 봉교지인(奉敎之人)은 더욱 절실히 삼가고 조심합니다. ... 충성은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몸을 허(許)해서 목숨을 바치고, 끓는 물 속에 들어가고, 타는 불을 밝기도 하며, 감히 피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아니하면 가르치는 계명(敕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래도 과연 무부무군(無父無君)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까?" (정하상, 1839)

이 증언 속에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과연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타종교보다도 효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십계명의 제4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행위'가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행위가 아니며,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우상숭배'인가?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닌가? 개혁신교에서 성만찬도 예

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2.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분 하나님입니다.

우선 죽은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제사드릴 때 쓰는 '지방(紙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 끝에는 '신위(神位)'란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지방'은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附君神位)'라고 씁니다. 이 뜻은, '평소가 가까이 모시던 아버지가 고인이 되어 '신神'의 '위位'에 앉으신 때, 곧 죽으신 날, 귀신이 되어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적 위치'로 올라가도록 인간을 유혹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 3:5)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고 유혹합니다.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행위'도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린다는 것도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초 성만찬 예식이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제사'란 의미로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께서 배푸신 성만찬은 스스로 '유월절 양 잡는 날' (막 14:12) 제자들과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언약식사', 곧 '계약 체결'이지 '죽은 자를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4). 이렇게 '말씀'과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 24:8) 따라서 성만찬 제정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는 말씀도 예수님께 제사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언약은 '죽은 자'와 맺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와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만찬은 제사 음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성만찬은 결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이자, 동시에 '새로운 계약체결'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체결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렘 31:31-33) 그러므로 기독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

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분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5-6)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 - 비록 죽은 부모라 할지라도 - 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3.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 산에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엘리아'와 '모세'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마 17:1-8)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고전 15:19)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곧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효도는 단지 '부모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고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죽은 부모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 돌아가신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자식은 부모를 봉양코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계십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서 부모님을 뵈울 수 있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처럼, 우리도 그곳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양로원, 혹은 후미진 방구석에 계십니까?' 돌아가신 후 후회하지 말고, 빨리 내 집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고향에 계십니까?' 자주 전화라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 효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사' 혹은 '추모기도회'의 정당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지금 눈앞에 살아 계신 부모님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효도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죽은 부모에게 효를 어떻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